

## 사회생태주의의 기독교 윤리적 수용 연구

김능률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는 근대 이전에 일어났던 다른 파괴와 그로 인한 위험과는 그 범위와 양상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근대 이전의 파괴가 가시적(可視的)이고 국지적(局地的)이었던 반면 19세기 이후 그 위기는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어 21세기 들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울리히 벡(Ulich Beck)은 현대의 위기를 생태위기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그는 “오늘날의 근대화는 산업사회를 해체하고 있으며 다른 근대성이 형성되고 있는 중”<sup>1)</sup>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현대의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평가한다. 즉, 그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생태위기에 있다고 보면서 이 위험사회는 ‘결핍’사회로서 분배문제가 과학·기술적으로 생산된 위험과정의(분배)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갈등과 증첩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자연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이 빚어낸 자연환경의 파괴는 오늘날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됐다. 따라서 현대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자연의 파괴, 즉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상호의존, 전 지구적 관점의 견지 등의 새로운 차원의 의식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인류가 21세기에 들어와서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논자가 서구의 대표적인 생태이론 가운데 하나인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여느 생태담론보다도 사회윤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사회의 윤리화’를 통해 생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생태주의의 주장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생태주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인류가 현재 처한 위기의 상황을 통찰하여 인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독교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심히 좋은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1.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생태주의

복천이 생태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당시만 해도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는 1952년 루이스 허버(Lewis Herber)라는 가명으로 그의 최초의 글인 <음식물에 포함된 화학첨가제의 문제점 *The Problem of Chemical in Food*>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근대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

1) 울리히 벡,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1997), 40.

목의 봄 *Silent Spring*보다 6개월 먼저 발간된 것이다. 복친은 1963년 뉴욕 레이번스우드 핵발전소 사고를 기화로 반핵운동에도 관여했으며 이후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녹색운동에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지난 1964년 <생태주의와 혁명사상(Ecology and Revolutionary)>과 1965년 <해방적 기술을 향하여(Toward a Liberatory)>라는 두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구체화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생태주의’이다.

다른 생태사상가들에 비해 비교적 강렬한 문체로 쓰여진 그의 글들이 다작(多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단 몇 권의 텍스트로 머레이 복친이 체계화한 사회생태주의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회생태론자로서 그의 저술에 일관되는 주제는 “생태문제는 곧 사회문제”이다. 복친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사회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물으면서 그 대답을 탐구한다. 이에 대해 복친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생태위기의 증후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순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과 “위계질서와 지배에 대한 비판과 해체가 현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반문제 즉, 불평등 구조, 자본주의적 구조,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듯 기존의 생태담론과는 달리 사회생태주의가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견지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생태주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2.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 2. 1 심층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는 최근의 생태학적 지식이나 지혜에 기초한 철학적 혹은 윤리적 관점을 갖는다. 심층생태주의라는 용어는 노르웨이 과학철학자 안 네스(Arne Naess: 1912-)<sup>2)</sup>가 그의 논문 「표층적, 심층적, 장기적인 생태운동」(1973)에서 처음 사용하였다.<sup>3)</sup> 네스에 의하면 선진국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주목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이 고갈에 맞서 싸우는 환경보호운동을 ‘표층생태운동’(Shallow ecology movement)이라 규정한다. 표층생태운동이 인간과 환경을 분리해 고찰함으로써 인간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반하여 심층생태운동(Deep Ecology Movement)은 생태계를 ‘관계적, 전체적 장’(relational, total field)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실현’(Self-realization)과 ‘내재적 가치’<sup>4)</sup>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

2) Arne Naess,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s* (1973): A summary, inquiry,16, 95-100.

3) David Kinsely는 ‘심층생태학’이라는 용어를 두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공리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형태로서만 생태학적 주장들을 하는 ‘표층적(shallow)적 생태학과 구별한다. 둘째, 실체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근거에 있는 근본적인 주장들을 식별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David Kinsely, *Ecology and Relig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95, 184. 또한 George Sessions는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적 ‘대지윤리(A Sand County Almanac, 1949)→1962년 침묵의 봄→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주류 환경기구들에 대한 반발로 생긴 그린피스와 지구 우선(Earth First!)으로 이어지는 심층생태운동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 George Sessions, "Ecology as Worldview," etd, M.e. Tucker. *Worldview and ecology: religion, philosophy, and the Environment* (N.Y.: Orbis books, 1994), 209-210. 소기석, 위의 책, 51, 참조

4) 고유한 가치(intrinsic value)가 어떤 대상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다고 인간에 의해 평가된 것에 반하

로 이끌어간다.

네스는 단순히 지구 오염이나 자원고갈을 반대하는 자연보존운동은 개량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 환경운동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좀 더 심층적으로 생태학의 관심사를 확대시켜 다양성, 복합성, 자율성, 탈중심성, 공생관계, 평등주의, 무계급성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심층생태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위기의 뿌리로 비판하면서 새 문명 패러다임의 궁극적 규범을 자기실현과 생명중심의 평등의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며, 자연적 존재와 비교할 때 당연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나는 사회구성원인 남과 동일한 하나임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 자연적 존재 및 우주와도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하나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우리와 다르게 간주되었던 모든 자연적 존재도 생명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정확히 평등하다고 본다. 그래서 두 번째 규범이 생명중심적 평등이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자는 “우리 모두가 구제되기 전에는 아무도 구제될 수 없다”<sup>5)</sup>고 선언하면서 가장 원리적으로 자연을 존중했다. 환경 비정부기구(NGO) 가운데 하나인 Earth First!(지구 먼저-역자 주)는 심층생태주의를 운동이념으로 천명했는데, 이름에서 보듯이 인간이 우선인 현 상황을 지구 먼저로 바꾸고자 한다. 한편, 제임스 러브록(J. Lovelock)이 제창한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도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가이아 가설은 지구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본다는 점에서 심층생태주의와 유사한 점을 많이 볼 수 있다.

## 2. 2 사회생태주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부정, 사회위기에 대한 생태중심적 접근, 위계와 지배관계의 근절 등 심층생태론과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사회생태주의는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한다. 사실 사회생태주의의 주 골격은 심층생태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 그 사상을 체계화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생태론은 모든 이원론적인 사상을 배격하는 가운데 자연과 사회의 일원성과 연속성을 주장한다. 아나키즘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평등을 생각하는 복친은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1982년부터 심층생태주의자와 결별을 선언한다.

복친은 생태계 위기에 대해 그 해결방법은 “사회적 비판과 사회적 변혁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생태주의”<sup>6)</sup>뿐이라고 강조한다. 사회문제의 해결 없이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친이 이론화한 생태주의가 ‘사회적’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복친은 이 사상을 통해 생태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사회의 불평등한 위계구조에 있다는 것과 보다 급진적인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와 지배에 대해 복친은 우월한 집단이 그보다 열등한 집단에게 행하는 명령으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도시에 의한 농촌의 지배’, ‘정신에 의한 육체의 지배’ 등 사회전반에 분포해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 내에서의 이러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결국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로 이어졌고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sup>7)</sup> 봄으로써 일체의 지배나 위계로부터 해방된 즉 자유로운 사회만이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여,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선을 가지고 있는 가치이다.

5) B. Devall & G.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67.

6) 머레이 복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박홍규 역 (서울: 민음사, 1998), 16.

7) 위의 책, 51-94.

북친은 또한 생태문제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식 생산체제를 비판한다. 이 부분에서도 심층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이 “기업사회의 발상법과 매우 흡사하다”고 평한다. 즉, 그들의 ‘생물중심주의’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매카니즘으로 사용되어 반동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sup>8)</sup>고 주장한다.

북친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만 아니라 사회주의 생산체제 역시 비판하고 있다. 두 체제 공히 무절제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계급을 철폐한다고 해서 생태위기가 해소된다고 보지 않는다. 계급의 지배가 철폐되어도 또 다른 지배가 찾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자들은 그들이 비록 수천 년 동안 지배에 관한 관념에 사로잡혀온 서구문화가 자연과 비서구적 문화에 지배적 세계관을 전이해 온 것을 각성하고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계몽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인간중심적 가치와 관점에 대한 거부는 ‘인간중심주의’의 영역 안에 지구 위의 모든 인류를 일반화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버린 오류를 낳고 말았다. 즉 선진국은 물론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3세계 등 후진국 국민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3. 사회생태주의의 이념과 사회윤리적 특징

#### 3. 1 철학적 기초: 변증법적 자연주의

생태문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이론을 어떻게 연관하여 사유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변증법적 이성을 동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북친의 대답은 변증법적 자연주의다.<sup>9)</sup> 이는 사회생태주의의 철학적 기초이며 방법론이다.

북친은 변증법적 자연주의야말로 사회이론과 생태문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sup>10)</sup>고 단호히 말한다. 그가 변증법적 이성을 설명하면서 자연주의란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변증법적 해석에 관념적인 것과 유물론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연세계 내 인간과 자연의 위치를 보다 풍요롭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sup>11)</sup>

여기서 심층생태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 본다. 즉, 인간과 생물학적 종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이다. 이에 따라 북친은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종 이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특성으로 ‘언어와 개념적인 사고능력’을 꼽는다. 인간은 바로 이 능력을 통해 단순한 생물과 구별된다고 보는데 이 대목에서 북친은 ‘자연’을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으로 구별한다. 일차 자연은 생물학적 자연을 의미하며 인간은 이 일차 자연으로부터 이차 자연-정치적인 자연, 사회적인 자연, 문화적인 자연을 발생시켰다.<sup>12)</sup>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차 자연의 성격인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진화과정에서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모순구조를 지닌 사회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생태사회로 발전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차 자연은 모순구조가 중층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로 “위계질서, 계급, 국가, 사유재산, 경쟁적인 시장경제-시

8)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15.

9) 위의 책, 235.

10) 위의 책, 69.

11)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론의 철학』, 59.

12) 위의 책, 64.

장경제에서 경쟁자들은 서로를 희생시키면서 성장할 의무가 있다-등에 의해 특성화되고 있다.”<sup>13)</sup>

그러므로 사회진화가 자유롭거나 평등하며 생태적이기는 커녕 위계적이고 계급적이며 국가주의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차 자연의 모든 구조는 일차자연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차 자연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채 진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과 인간도 아직은 자의식화(自意識化)된 자연이 아니다. 따라서 전(全)생물권의 미래는 이차 자연의 선택에 의존하는데, 복친은 새로운 사회 또는 새로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자유로운 자연’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이다.

복친은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통해 우리 인간은 단순히 종 이상의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대립하는 계층이나 계급으로 분할하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자연세계의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 3. 2 이념적 기초: 아나키즘

사회현장은 복친에게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토양이다. 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로 살아야 했던 경험이 20세기 초 유럽의 노동운동과 스페인 시민혁명으로 발현된 아나키즘(Anarchism)을 만나게 했다. 교의와 운동의 특성을 지닌 아나키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해 왔다.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혹은 발전의 거침돌이라는 희망과 비탄의 소리를 들어온 아나키즘은 역사 속에서 결코 사라져 본 적이 없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난 아나키즘의 스펙트럼은 개인주의적, 상호주의적, 집단주의적 아나키즘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하나의 ‘아나키즘’으로 불리는 것은 자연론적 사회관, 자주인적(自主人的) 개인, 공동체의 지향, 권위에의 저항 등의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sup>14)</sup>

아나키스트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삶은 통제나 지배가 아닌 자주적 관리를 표방한다. 아나키스트에게 국가나 모든 권위주의는 ‘자주적’ 공동체 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아나키스트들이 현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복친은 아나키스트이다. 크로포트킨의 집단주의적 아나키즘 전통에 환경 생태문제를 추가한다. 복친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상부상조의 윤리’와 ‘연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게 이것은 자율적 자치주의, 연대주의의 지배규약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복친은 사회의 전반적인 생태혁명을 강조한다. 생태문제 해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내세우는 사회생태주의는 그런 점에서 인본주의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복친은 “우리는 풍부한 개념적, 사회적, 상상적, 건설적인 속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인간의 생물종으로서의 독자성을 자연의 풍요함, 다양성, 창조성과 동일시하여야 한다.”<sup>15)</sup>며 자연 혹은 생태계와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 3. 3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

인간의 행복한 삶과 자아의 실현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고전적인 개념의 윤리이며 정치라고 할 것이다. 사회생태주의는 이러한 윤리에 터하여 생태적으로 재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정책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개발하고 신장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한, 생태적으로 책임적인 제도를 활성화

13) 위의 책, 65.

14) 방영준,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CH3.

15) 머레이 복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40.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 원리는 바로 참여에 있다. 자유 자체로서의 생태윤리와 참여의 원리는 기존 사회에 수립되어 있는 지배와 위계질서를 철저히 부정한다.

복친은 참여의 원리를 변증법적 자연주의에서 도출하고 있다. 그는 역사 자체를 해방적 잠재력을 실천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자유 자체가 해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에 걸맞는 정치체제는 참여의 원리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참여정치는 지역적, 소규모적인 것을 지향한다. 그것은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자신의 사회를 통제할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지구라는 더 큰 생태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자신의 위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더 큰 자유와 자기실현을 이루는 데에 방해되는 온갖 유형의 지배와 억압을 제거해야 한다. 복친은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도시화된 산업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자치주의를 표방한다. 사회생태주의가 꿈꾸는 역사발전의 목표는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Libertarian Municipalism)에 있다.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은 상품이나 재화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들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의한다. 더 나아가 토지, 공장, 작업장은 국민국가, 또는 자유로운 지역사회의 시민(민중)회의에 의해 통제된다.<sup>16)</sup>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의 서로 대화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시민들에 의해 운영된다. 시민이면 누구든 신분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생산 활동의 순환에 참여한다. 이 생태적 지역사회는 경제를 지역자치화하고, 다른 지역사회와도 연대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지역연합 시스템을 이룬다.<sup>17)</sup>

### 3. 4 도덕경제의 회복

현대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윤리적 비판과 함께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지향하는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는 대안으로서 “도덕 경제”(moral economy)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만연해 있는 비도덕적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적인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경제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생산은 더 이상 이윤과 사욕을 이루기 위한 원천으로 간주되어질 수 없다. 나아가 소비주의와 비도덕성을 만연시키는 자본주의적 산업주의가 해체된다. 이와 함께 거시적으로 선진산업국의 대안경제가 담당해야 할 후진 개도국 발전 전략은 오늘날처럼 재래산업 부문에 정보화·자동화 과정을 도입하는 재산업화로 나타나지도 않는다.<sup>18)</sup> 그것은 자국의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자유무역 증대를 확대해 가는 선진 산업국가의 후진 개도국에 대한 전략 즉, 세계화(Globalization)의 경제가 인류를 ‘암흑의 시대’로 몰아가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는 불행하게도 역사 발전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것처럼 여겨진다. 산업 이전의 사회보다 인간과 자연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으며 인간은 주체가 아닌 객체인 대상으로 전락했고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으로 변모하였다. 맑스의 표현대로 “상품의 물신화”, “필요의 물신화”인 셈이다.<sup>19)</sup>

16) 머레이 복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254.

17) 위의 책, 246.

18) 위의 책, 277.

19) 위의 책, 124.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사회생태주의는 오늘날 사회적.생태학적 위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 자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지역 차원의 규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여기에 함께 하고 책임성 있는 경제조직, 기업운영시스템의 혁신, 소비자 단체나 노동조직 등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제안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생태주의를 정리하면, ‘사회의 윤리화’에 대한 대안이 사회생태주의이다. 그렇다면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수용은 어떻게 가능한가? 논자는 하나님-인간-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태주의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4. 사회생태주의의 기독교 윤리적 수용

### 4.1 상호 의존 - 관계의 신학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한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기를 원한다. 사회적 명성도 원한다. 쾌락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욕구와 행동이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을 창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모순을 즉시 해소하지 않으면 인류의 존망이 위태로울 정도로 지구상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 전체 나아가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의 사이의 유기적 연관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유기적 연관이라 함은 자연/초자연, 주체/객체, 이성/감정과 같은 데카르트식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버의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모색되는 세계관이기도 하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태계는 전체로서 하나이다. 그 안에서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학이 해야 할 일은 “관계와 상호의존, 변화와 변형”이라고 셸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말한다.<sup>20)</sup> 이것은 신학이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상호의존의 생태학적 모델은 윤리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돌봄과 나눔의 가치다.<sup>21)</sup>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시듯, 예수님께서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사람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생명을 위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어야 할 본질적 연관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생명의 존속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상호의존, 즉 돌봄과 나눔이다. 생태학의 핵심이 인간-자연 관계의 문제라면 기독교 생태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관계, 즉 하나님- 인간-자연 사이의 총체적 관계를 탐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신학은 ‘관계의 신학’(Theology of Relationship)<sup>22)</sup>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성 측면에서 생태윤리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적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과 세계관계를 분리와 대립의 관계가 아닌 통전적(Holistic) 관점에서 인식하도록 한다.<sup>23)</sup>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관계와 자연 관계라는 이중관계 아래서

20) Sallie Mcfague, *Models of God* (philadelphia: Fortress, 1979), 8-9.

21) K. C. 에이브러햄,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신학적 응답,” 정연복 역 『기독교사상』 1997, 9월호, 222.

22) 김동춘, “관계중심의 생태윤리,” 『기독교와 환경』 (서울: SFC, 2003), 49.

실존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대리자이다. 그러나 인간의 대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지배의 대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다. 창1:28에 허용된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한다. 그러나 이 지배는 ‘의무로서 지배’요, 위임된 관리요, 돌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자연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지배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권에 대한 바른 이해, 즉 ‘책임적 지배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공동 실존성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연에 대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기독교생태윤리는 ‘삼위일체적 대리(代理)’ 개념을 통해 그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 대리란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적 현실이 그의 제자직의 삶 안에서 유비적으로 구체화되는 ‘형성으로서의 윤리’라면, 자연생명을 위한 책임윤리를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적합한 윤리적 틀은 기독교적 실재론을 넘어 삼위일체론적 현실주의<sup>24)</sup>가 요청된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반성과 생태중심의 세계관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 및 상보관계를 통한 공명사상은 하나님-인간-자연의 상호연관 속에서 관계중심의 신 중심적(theocentric) 생태윤리이다. 이러한 윤리는 불평등 구조에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사상인 사랑과 정의의 문제가 요청된다.

#### 4. 2 정의와 사랑의 문제

정의는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불의를 낳는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대부분 상보적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착취의 역사였다.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윤리이다.

기독교 신학과 윤리의 기초인 사랑은 생태윤리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기독교는 사랑이 모든 존재의 근거이자 목표임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16) 이것은 에밀 브루너(E. Brunner)의 표현대로, ‘신약성경과 기독교 복음의 심장<sup>25)</sup>’이다. 하나님은 본성과 성품, 그리고 그의 행동이 사랑이라는 주장은 대단히 혁명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창조의 과정 자체도 사랑의 행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피조물, 인간, 다른 피조물 그리고 그들의 서식처는 사랑의 선물일 뿐 아니라 사랑의 산물이며 밀려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수용자들이다. 모든 만물은 가치의 원천으로부터 가치를 부여받았다. 모든 만물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은 단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각 사물 자체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대우받아야 한다.<sup>26)</sup>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역이 사랑의 사역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기독교윤리와 행동은 그 사랑을 반영하는 형상이 되고자 하는 충실

23) 생태학적 통전주의는 인간과 자연, 영혼과 육체, 사회와 자연,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열적 관점을 지양하고 전체적 관점, 상호연관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과 세계의 분리보다는 연합을 강조하는 신학적 통전주의 내에서는 범신론적 경향의 우주, 자연중심적 통전주의와 범재신론적 유형의 신중심적 통전주의로 분류된다. 김동춘, “관계중심의 생태윤리,” 『기독교와 환경』, 65.

24) 이미 삼위일체 신학을 경제윤리(Mouglas Meeks)나 인간학(Stanley Grenz) 등 현실윤리에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생태신학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진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보여지고 있다.

25) Emil Brunner, Dogmatics, vol. 1,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0), 183,185,199.

26) James A. Nash,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기독교 생태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23.



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정의와 사랑은 어떤 관계인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사랑-논쟁의 중심에 서 있곤 했다. 니버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완전한 윤리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사랑의 최고 형태이다. 이 규범은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모든 가능성을 초월한다.<sup>27)</sup>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이다.<sup>28)</sup>

정의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다. 사랑은 정의와 연합한다. 폴 틸리히의 견해<sup>29)</sup>를 따라 윌리엄스(D.D. Williams)는 “정의를 중시하지 않는 사랑은 감상적인 생각일 뿐이다.”<sup>30)</sup>라고 논하였다. 정의는 옳은 것과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다.(고전13:6)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조물과 인간의 부서지기 쉬운 상호관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도덕상의 권리와 적절히 연관된다. 특히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생물의 권리도 그들의 복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의를 생물의 권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의의 이면에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권리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다. 권리는 책임을 위한 객관적인 참고기준을 제공한다. 권리와 책임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할 때, 인간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에 도덕적으로 매이게 된다. 물론 그것은 환경권과 생물의 권리도 인정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도 된다.<sup>31)</sup>

이제 생태체계는 환경정의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태체계는 모든 피조물의 권리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론적 의식과 관심이 결여된 환경정의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생명중심의 개체주의’(biocentric individualism)와 ‘생태중심의 전체론’(ecocentric holism)<sup>32)</sup>이 경쟁관계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윤리체제로 인식되는 한개체와 집단의 도덕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희망적인 해결책은 필립 위거먼(P. Wogaman)이 말한 대로 양극을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윤리적 해석에 있다고 본다. 양극은 다른 상황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선이 개인의 복리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은 생태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의 복리는 개체의 복리와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sup>33)</sup> ‘생명’을 매개로 한 상보적 관계에 의한 ‘정의와 생태공동체 윤리’는 생명체의 생존에 책임을 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오늘이 시대에 정의는 생태계와 관련하여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 4. 3 가난한 자를 위한 선택적 우위

세계화는 외형적으로는 국가간·인종간 장벽을 제거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기 보다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넓히고 다윈의 진화론적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자본의 거대화·집중화를 통해 다양성의 문화를 획일화된 자본주의 소비문화 속에 용해시켜 버린다.

27)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II (N.Y.: Charles Scribner's Sons, 1949), 66-76.

28) 위의 책, 76.

29) P.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I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3), 172, 174.

30) D. D. Williams, *The Spirit and the Forms of Love* (N.Y.: Harper&Row, 1968), 250, 260.

31) James A. Nash, 위의 책, 268.

32) Wenz's terms, Peter Wenz, *Environmental Justice*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88).

33) James A. Nash, 위의 책, 290.

그러므로 오늘 인류에게는 인간과 자연의 화합이라는 생태적 휴머니즘에 기초한 생명의 존중, 욕망을 채우기 보다는 비울 줄 아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각이 시급히 요구된다.<sup>34)</sup>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은 무엇보다도 공생의 체제를 중심에 두고 내려져야 한다.

해방신학자들은 197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가 직면한 지속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세계에 대하여 대안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사회생태주의를 적절한 생태론적 관점으로 수용하였다.<sup>35)</sup> 남쪽이 처한 생태위기는 북쪽과는 달리 빈곤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태주의는 가난한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관점을 고수한다. 가난한 자를 위한 선택적 우위라는 해방신학의 통찰은 세계의 현실과 인류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하여 민중의 편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편에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편에서 생태문제를 바라본다.

정의는 돌봄이 없이는 결코 이룩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자비와 동정으로 표현된다. 예언자들을 통해 한결같이 드러나는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sup>36)</sup>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가난을 경감시키는 것은 생태학적 정의에 해당된다. 만일 가난한 자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연환경에 대한 정의 없이는 사회정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는 사회정의 없이는 자연에 대한 정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sup>37)</sup>

기독교인의 삶은 사회정의와 생태정의에 입각하여 세계를 바라보고 그가 묻는 물음들에 응답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 5. 맺는 말

복천은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 모두에게 자유영역을 보장해 줄 것을 주문한다. 그가 추구하는 생태윤리는 바로 에코 아나키즘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의 제거를 통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종식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확보되고 인간과 자연의 하나 됨이 온다.

에코 아나키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변증법적 자연주의가 사회생태론의 철학적 기초로 등장한다. 자연은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 변화성, 복합성, 상보성, 자발성을 향해 발전해 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정을 참여와 진화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 원리에 따라 참여자치의 공동체와 생태 친화적 도덕경제의 실천문제가 나온다.

복천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생산체제나 사회주의 생산체제 모두 무절제한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체제 그 자체를 변혁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에 기초한 유기적인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생태문제

34) 김정현, 『생태학적 생명사상』(서울: 범한철학, 1997), 137.

35) Braidotti, Rossi. 외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Wome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한국여성 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옮김 (서울: 나라사랑, 1995)

36) K. C. 에이브러햄, 위의 책, 221.

37) J. Moltman, *The Future of Creation* (Philadelphia: Fortress, 1979), 128.

는 오로지 국가권력을 넘어선 '자유로운 개인의 자율적인 연합'으로 형성되는 사회의 건설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가 약속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나 오직 그 제도들 내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화해를 재현하는 협동적인 공동체가 통합적으로 나타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생태주의는 보다 급진적인 민주주의 형식과 민주주의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을 통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태주의가 갖는 신학적 작업은 해방신학적 접근이라고 본다.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선택적 우위'라는 통찰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생명'을 위한 선택적 우위로 생태담론의 지평을 넓힌다. 사회생태신학은 그들이 바로 가진 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착취당하는 가난한 민중들과 자연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회생태신학의 과제이다.

한편, 사회생태주의가 이성에 대한 맹신을 근거로 인간을 너무 계몽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또 다른 인간중심주의의 편향을 보이며 그들이 제시하는 생태공동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비판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회생태주의가 제시하는 사회문제와 생태문제의 분리 불가능성, 지역단위의 자치공동체, 생태적 도덕경제의 실현이라는 실천적 전망 등은 이 시대에 유용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생태위기 시대에 사회생태주의는, 자유로운 시민세력이 주도가 되어 대안적인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이루어 나가고 소규모의 공동체 운동이나 지역 민회운동 등 생태운동의 정치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사회생태주의의 새로운 수용을 통해 사회구원적 해방신학과 창조신앙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회생태주의의 기독교 윤리적 수용에 따른 한국 교회의 구체적 실천 강령이나 실천적 대안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계속되는 연구 논의를 통해 세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이상(理想)이 '유토피아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이상이 희망과 함께 예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